



19세기 프랑스의 탁월한 중세 건축 복원이론가

유진 에마누엘 비올레 르 뒤크를 말하다

19세기 문화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흐름으로 등장하게 된 고딕 복고 양식. 그 뒤에는 유진 에마누엘 비올레 르 뒤크(Eugene-Emmanuel Viollet-le-Duc)가 있다. 예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들로 평가받는 그의 저서와 행적을 되짚어본다.

번역 우영선 에디터 김수진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www.maroniebooks.com)

비올레 르 뒤크의 건축 프로젝트와 저서들은 19세기에 고딕 양식이 복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의류, 보석, 생활용품에서부터 실내 디자인, 건축에 이르는 고딕 양식의 여러 형태와 표현 방식을 연구했다. 게다가 당대 화가들도 중세시대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고딕 복고는 19세기 문화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흐름으로 등장하게 된다.

비올레 르 뒤크의 문화적 활동은 예술사, 중세 기념비 복원 사업, 건축이라는 서로 다른 세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의 작품과 교육 활동은 이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빅토르 호르타(Victor Horta, 1861~1947)와 가우디(Gaudi, 1852~1926)에서부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9~1959)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다. 이들은 모두 여러 측면에서 비올레 르 뒤크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삶과 작품 부유한 가문의 후손이자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었던 비올레 르 뒤크는 1814년 1월 21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유명한 예술사가이자 화가였던 에티엔 장의 손자였던 그는 진보적이며 개방된 프랑스의 문화적 분위기가 가득한 집안에서 성장했다. 건축가 장 자크 후베와 A. 르클레르의 실습생으로 한동안 지낸 후 그는 건축 훈련을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드로잉에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1834년 살롱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에콜 데 보자르의 고전적 교육 지침에 대해 학창 시절부터 크게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학문적인 경력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중세 건축과 고고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불과 26세에 중세시대 성당들 중 한 곳인 베즐레의 미들렌 성당을 복원하는 일을 맡으면서 그는 자신의 건축 경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후 파리의 생트샤펠 같은 중요한 건축물 복원 일을 맡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중세 문화 전문가가 되었다. 1844년에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성당인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복원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즈음 역사에 길이 남을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프랑스 건축가가 행한 가장 기념할 만한 복원 작업은 프랑스 남부의 카르카손 성벽을 복원하는 일로 1849년에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에 아미앵 성당도 복원했다. 비올레 르 뒤크는 자신의 방대한 건축 지식들을 담은 여러 권의 저서들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들은 중세 예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들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고전주의자들은 그의 미학적 신념들에 적대감을 나타냈으며, 결국 1864년 그는 에콜 데 보자르에서 맡고 있던 예술사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다. 1879년 스위스 로잔에서 사망했다. ㉞

1 노트르담 성당의 모습. 1844년 복원. 2 1849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된 카르카손의 모습. 카르카손의 성채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군사 건축물 중 하나다. 3 파리의 생트샤펠의 내부 모습. 1840년 복원. 4 노트르담 성당의 서쪽 탑 정상에 있는 세로 흉물. 1844~64년경, 파리. 비올레 르 뒤크는 이 성당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 세로 흉물을 고딕 복고 양식으로 디자인했다.

